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4. 5.(수) 대전에서 설명회 개최, 어촌관광 정책방향 및 지원내용 공유
- 민간기업과 어촌체험휴양마을 간 협업을 통해 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마을은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관광모델 제안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4월 5일(수) 대전KW컨벤션에서 '2023년 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어촌관광 정책 방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세부 지원내용,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124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하 '마을') 운영진과 각 지자체 담당자, 관광 분야 민간기업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통상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어촌에서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구현해보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마을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미식 여행, 자전거·도보 여행, 반려견 동반 여행 등 국민 관광 수요가 다양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운영진들이 본업인 어업과 관광업을 함께 운영하다 보니 이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을과 민간기업 간의 협업을 통해 민간기업이 가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을에서 구현해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익을 마을과 기업이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광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마을과 민간기업 간 소통창구를 만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과 민간기업이 함께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원중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어촌관광 프로그램 다변화와 더불어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설명회로 어촌체험휴양마을과 민간기업 간 상호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담당자	사무관	류지호 (044-200-5651)



참고

2023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2023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 설명회



2023년 4월 5일(수) 10시 ~ 16시

대전 KW컨벤션, 3층 컨벤션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134번길 13)